

불·한 형용사 어휘 대조 연구 서설*

- 관계형용사의 경우를 중심으로 -

홍 재 성

(서울대학교 불어불문학과/인지과학협동과정)

1. 머리말

1.1. 문제의 제기

이 글에서 우리는 불어 형용사의 하위부류로 설정될 수 있는, 이른바 관계형용사 *adjectifs de relation*와 그 한국어 대응표현의 대조 분석을 시도해 보고자 한다. 우선 전형적인 관계형용사로 특징지을 수 있는 어휘를 내포한 명사구가 한국어 표현과 어떻게 대응되는지를 구체적 사례로 제시해보면 다음과 같다.

- (1) a. *production pétrolière* 석유(의) 생산
- b. *restaurant universitaire* 대학식당
- c. *aide financière* 재정(적) 지원
- d. *route nationale* 국도

불어의 경우, *universitaire*, *pétrolier* 등은 명사구내에서 생략이나 비실현이

* 이 연구는 2000년도 서울대학교 발전기금 연구 지원(과제번호 00-3-1-10)에 의해 수행된 것이다. 이 연구 보고 논문의 작성에는 자료 수집, 원고 정리를 위해 연구보조원 불어불문학과 대학원 박사과정의 고길수 씨가 적극 참여하였음을 밝혀 둔다.

가능한 수의적 구성 성분으로 명사에 후치하는 수식어 위치에 나타나며, 머리 명사의 성·수 일치에 따른 형태상의 변이를 보이는 점에서 명백히 형용사로 범주화된다. 그러나 한국어 대응표현은 전혀 형용사로 한정될 수 있는 요소들이 아니고, 명사이거나(대학), -의가 뒤따르는 후치사구(석유의), -적¹⁾ 파생명사 또는 자율적인 단어의 지위를 갖지 않은 어근적 요소²⁾(국-) 등이 된다.

분명한 점은 불어 관계형용사가 한국어 형용사에 대응될 수 없는 것인데, 그것은 한국어에서는 관계형용사로 특징지을 수 있는 형용사 하위부류가 존재하지 않기 때문이다. 따라서 우리의 문제는 불·한 양 언어의 어휘 대조의 테두리 안에서 비대칭적인 경우, 즉 불어에는 존재하지만 한국어에는 존재하지 않는 하위 어휘부류의 대응 문제를 살펴보는 것이다.

1.2. 연구 목표와 관점

우리는 불어 형용사 연구에서 중요하게 다루어진, 특징적 하위부류로서의 관계형용사의 한국어 대응표현을 분석함으로써, 다시 말해 이 부류의 형용사의 의미가 한국어에서 어휘화되는 양상을 분석함으로써, 그 결과가 전문언어사

- 1) 한자어 기원의 비자율적 의존요소인 -적(的)은 전통적으로 파생접사로 분석되어 왔다. 2)에서 소개할 어근 부류로 재분석될 가능성도 열려 있으나, 우리는 전통적 범주화를 그대로 채택한다. 또한 우리는 -적 파생어휘의 범주는 명사로 분석한다(홍재성 2001). 일부 품질형용사도 -적 파생명사에 대응시킬 수 있다: *favorable-호의적*, *hostile-적대적*, *agressif-공격적*, *idéal-이상적*.
- 2) 어근은 한국어에서 열심, 조용, 강력, 동일, 국제, 또는 흔들 등과 같이 특정한 어휘적 의미를 지니지만, 격조사가 부착될 수 없고 수식 요소의 첨가가 불가능한 점에서 단어의 지위를 지니지 않은 비자율적 요소/형태론적 단위의 부류를 지칭한다. 이들 요소는 파생접사가 붙을 수 있는 여기(base)의 기능을 하거나—*조용히*, *국제적*—, 합성어 구성 요소가 되거나—*조용하다*, *강력하다*, *강력계*, *동일성*, *흔들바위*, *흔들거리다*—, 또는 -이다 앞에 분포되어—*열심이다*— 서술어를 이룬다. 이러한 관점에서 보면, 어두 또는 어말에서 한국어 단어 구성 요소로 참여하는 단음절 한자어 요소—예컨대 *국비*, *국정*, *국립*, *국경/적국*, *부국*, *민국*, *대국*의 *국*과 같은 요소—는 모두 어근으로 범주화될 수 있을 것이다.

전³⁾으로서의 불·한 형용사사전 개발에 활용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우리의 일차적 목표이다. 불·한 형용사사전은 장기적으로는 불·한 동사사전이나 불·한 부사사전, 또는 불·한 전치사사전 등과 함께 대규모 불·한 이개어 사전을 구성하는 하위사전으로 기능하게 될 것인데, 현재로서는 이들 하위사전을 모두 범용적 전자사전으로 단계적으로 구축할 구상을 갖고 있다. 범용적 대규모 불·한 이개어 전자사전은 기존의 불·한 이개어 사전을 획기적으로 개선하는 다양한 인쇄사전—일반 언어사전/학습사전 등—의 개발이나 불·한 이개어 자연어 처리 시스템을 지원하는 여러 유형의 응용 전자사전 개발에 필수적인 기반 어휘자원으로 활용될 수 있으리라 예상된다. 또 한편으로 우리의 대조 연구는 불어와 한국어, 양 언어의 어휘 구조 및 어휘화 특징을 분석하는 일반 언어학 연구, 특히 어휘 유형론 연구에 기여하고자 하는 궁극적 목표를 갖고 있다.

우리가 불·한 양국어 어휘 대조 문제의 한 사례로 관계형용사와 그 한국어 대응 표현의 상관 관계를 다루는 기본적 입장은 품사 유형론적 논의의 틀에서 출발하는 것인데, 구체적 특징을 두 가지만 다음과 같이 요약해 두자.

- (2) a. 양국어에서 **개방적 대어휘범주**로서의 형용사의 지위를 대조적으로 한정한다. 이것은 상위 대어휘범주의 유형론적 특징과 지위의 대조에 바탕을 두고 하위 어휘범주의 대조를 살핀다는 의미이다.

3) 전문언어사전은 고유명사나 전문어를 제외한 일반 핵심어휘를 표제어화하여 그 언어적/어휘적 속성을 기술하되, 일반언어사전과는 달리 철저한 언어학적 분석에 입각하여 훨씬 정밀하고 광범위하게 그리고 총체적으로 어휘정보를 수록한 언어사전으로 특징지을 수 있다. 불어의 경우, LADL(Laboratoire d'Automatique Documentaire et Linguistique, CNRS)이나 LLI(Laboratoire de Linguistique Informatique, CNRS)에서 개발한, 또는 개발 중인 전자사전은 이와 같은 성격을 띠고 있으며, 한국어의 경우 문화관광부 주관의 한국어 정보화 계획인 세종계획의 테두리 안에서 개발되고 있는 세종전자사전 역시 이 부류의 사전이 될 것이다. 현재 우리는 한국학술진흥재단의 지원을 받아, 불·한 이개어 형용사 사전 구축을 위한 기초연구를 수행하고 있는데, 이 연구계획에서 구상하는 형용사 사전은 이개어 전문언어사전의 성격을 갖는다(장재성 외 2002 참조).

b. 관계형용사 문제는 양국어에 비대칭적으로 존재하는, 다시 말해 불어에는 존재하지만—이태리어, 스페인어 같은 로망어를 포함하여 라틴어나 영어 또는 슬라브제어 등의 인구어에 폭넓게 분포한다—한국어에는 존재하지 않는 하위 어휘부류 사이의 대조의 성격을 띤다. 이러한 양국어에서의 존재/부재라는 특징 역시 품사 유형론적 관점에서 접근하여 어휘 대조 문제의 주요 변수로 고려한다.

이와 같은 관점에서, 우리는 4절에서 관계형용사 대조 문제를 검토하기에 앞서, 예비적 논의를 통해 불어/한국어 형용사 부류의 유형론적 특징을 간략히 기술해보고, 3절에서는 불어 관계형용사 기술의 문제점들을 정리해 보기로 한다.

2. 예비적 지적: 불어/한국어 형용사의 유형론적 대조

근래의 품사—또는 어휘 부류—유형론 연구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경험적인 일반화가 가능하다⁴⁾.

- (3) a. 현재까지 연구된 모든 언어가 공유하는 보편적인 품사 체계는 존재하지 않는다.
- b. 품사 체계 내의 주어진 품사 부류를 다른 부류와 구별짓게 하는 언어적 속성은 범언어적 변이를 보인다.

형용사 부류의 주요 유형론적 연구⁵⁾는 (3)a-b의 진술을 모두 확인시켜 준다. 우선 형용사는 모든 언어에 존재하는 어휘 부류도 아니고—형용사 부류

4) 근래의 품사유형론 논의에 대해서는 Sasse 1993, Evans 2000, Vogel and Comrie 2000, Anward 2001 등을 참조하면 좋을 것이다.

5) 우리는 대표적인 형용사 유형론 연구로 Dixon 1977, 1994, Wetzler 1992, 1996, Bhat 1999 등을 참조하였다.

가 존재하지 않는 것으로 분석되는 언어가 있다—, 형용사 부류를 설정할 수 있는 경우라도 형용사가 개방적 대어휘범주를 구성하지 않는 여러 언어가 학계에 보고되어 있다. 그러나 불어/한국어의 형용사 부류는 관사/관형사나 전치사/조사와 같은 폐쇄적 부류와는 대조적으로 비교적 짧은 기간 중에 새로운 어휘들이 생성되거나 또는 사용되던 어휘들이 소멸될 가능성이 열려있을 뿐 아니라, 그 어휘 목록이 대규모이고 엄격히 한정하기도 어려운 점에서 개방적 대어휘범주를 이루는 점은 공통의 명백한 특징이다.

또 한편, 형용사가 독립된 어휘범주의 지위를 지니고 있는 언어들에서, 형용사는 대부분이, 형태론적으로나 통사론적으로 명사와 유사한 행태를 보이거나 동사와 유사한 행태를 보인다. 이러한 점에 기초하여, 형용사는 유형론적으로 동사성 형용사와 명사성 형용사로 이분되는 것이 보통이다.

불어 형용사는 명사구 구성 성분으로 머리 명사를 수식하는 경우나 서술 관계prédication를 성립시키기 위해 이른바 속사attribut로 기능하는 경우에 일치accord에 의해 **명사와 동일하게** 성·수 변이라는 굴절형태론상의 특징을 보인다. 그리고 **동사와는 아주 다르게**, 인칭이나 상, 시제, 서법상의 형태적 변이를 보이지 않는다. 불어 형용사에는 동사의 굴절범주가 실현되지 않는다. 또한 통사론적으로는 **명사와 마찬가지로** 계사인 être 동사를 머리/핵으로 하는 동사구 구성 성분이 된다. 이 속성을 담화-화용론적으로 해석한다면, 불어 형용사는 동사와 동일하게 술어prédicat의 성격을 지니고 있지만, 동사와 달리 그 자체가 서술 관계 성립의 중심 역할을 하는 서술어가 될 수는 없다. 서술 관계를 실현시키기 위해 문장을 구성하려면, **명사와 마찬가지로** 기능동사⁶⁾의 지위를 지닌 계사 être의 도움을 필요로 한다.

이에 반해, 한국어 형용사⁷⁾는 명사와 어떠한 형태론적 속성도 공유하고 있

6) 기능동사의 개념은 근래 언어학 연구에서 광범위하게 활용되고 있는데, 한국어의 경우 홍재성 1997을 볼 것. 불어의 계사구문의 핵이 되는 être의 기능동사 분석은 충분히 가능하다. 계사구문을 포함한 일항 술어의 문장화 기제를 유형론적으로 탐구한 Stassen 1997은 불어/한국어 형용사 구문을 유형론적인 넓은 시야에서 조망하는데 크게 도움이 될 것이다.

7) 한국어 형용사의 유형론적 특성, 특히 동사와의 관계는 홍재성 2002에서 간략히 기

지 않다. 한국어 명사는 성, 수, 격 등 일체의 굴절범주와 양립하지 않는 불변화어이다.⁸⁾ 형용사는 그 대신 **동사와 마찬가지로** 존칭, 시제, 서법, 질 사이의 관계, 화계, 문의 양태 등등의 굴절범주와 양립하는 특징을 갖는다. 다시 말해 한국어 형용사는 동사와 대단히 유사한 굴절형태론적 변이의 양상을 보인다. 한편, 한국어 형용사는 **명사와 달리**, 그러나 **동사와 동일하게** 계사적 기능요소를 필요로 하지 않고 문장 구성의 핵심이자 서술 관계 성립의 중심 요소인 서술어 역할을 수행할 수 있다. 한국어 명사는 이를 위해 특별한 기능요소인 -이를 요구한다. 이와 같은 대조적 특징에 입각하여 불어 형용사는 명사성 형용사이고, 한국어 형용사는 동사성 형용사로 유형화하는데 이론이 없을 것이다.

우리는 다음과 같은 불어 형용사 부류와 한국어 형용사 부류가 각각 명사 부류/동사 부류와 관련하여 보이는 사례들을 대체로 두 언어의 형용사가 지닌 유형적 대조성에서 연유하는 속성으로 해석할 수 있다고 본다.

- (4) a. 불어 형용사는 범주 전환conversion(또는 무접사 파생)에 의해 한정사가 선행하면 명사로 기능할 수 있다.
 b. 불어 명사 역시 동일한 기제에 의해 형용사로 기능하는 것이 가능하기 때문에 형용사/명사의 범주 구분에 문제거리가 있을 수 있다.
 c. 불어 명사는 다양한 접미사를 동원하는 생산적인 파생 기제에 의거하여 수식 기능을 할 수 있다. 따라서 불어에는 다수의 명사파생 형용사adjectifs dénominaux가 존재한다.

(5)a-c는 형용사에 한정사가 선행하여 명사로 기능하게 되는 비전형적 불어 명사의 세 가지 하위 유형을 보여준다.

- (5) a. un aveugle, ce savant, des pauvres (인물 지시)

술되었다.

8) 홍재성 20017 참조.

- b. (le+du) beau, (le+du) neuf (구체사물 지시)
- c. (le+du) calme, le rouge (추상명사와 같이 속성 지시)

(6)a-b는 명사 *ami*나 *femme*가 형용사로 기능하는 사례를 보여준다.

- (6) a. Paul est très ami avec moi.
- b. Elle fait déjà très femme.

(4)c의 특성은 사례를 인용할 필요가 없는, 잘 알려진 현대 불어의 평범한 사실이다.⁹⁾ 그러나 우리가 문제삼는 관계형용사는 바로 이러한 특성과 직접 관련된 것이어서—관계형용사는 모두 명사파생 형용사이다—대단히 중요한 특성이다.

(7) 한국어 형용사와 동사(또는 명사)와의 관계

- a. 한국어에는 거의 동일한 의미로 또는 명백하게 긴밀한 의미적 연관성을 갖고 형용사/동사의 이중적 용법을 보이는 어휘가 다수 존재한다.
- b. 형용사/동사 범주 부여를 위해서는 세심한 관찰과 분석이 요구되는 문제거리의 어휘 또는 동사 범주로 분석될 요소를 내포한 합성 형용사 어휘가 존재한다.
- c. 형용사/명사 사이의 동형성은 관찰할 수 없고—두 범주 사이에 무접

9) 명사를 어기로 하여 형용사, 특히 관계형용사를 파생시키는 접미사 중 비교적 생산성이 높은 것만을 예로 들어도 다음과 같이 다양하다.

- aire : communautaire, tarifaire, universitaire
- ais/-ois : français, japonais, chinois, suédois
- al/-ial : départemental, gouvernemental, mondial, national
- el/-iel : obsessionnel, présidentiel, relationnel
- en/-ien : coréen, canadien, sartrien
- er/-ier : financier, laitier, pétrolier
- ique : climatique, démocratique, économique

사 파생에 의한 기능 전환과 범주 변동이 없다—, 명사파생 형용사의 유형도 제한되어 있다. 한국어에서 명사가 형용사와 유사하게 명사구 구성 성분으로 머리 명사를 수식하기 위해서는 명사가 그대로 범주 이동이 없이 쓰이거나, 조사 -의를 매개로 가능하고 또는 -적 파생명사의 형태로도 가능하다고 하겠다.

(8)a는 의미적 동의성 또는 연관성을 갖고 형용사/동사의 이중적 용법을 보이는 한국어 어휘의 예들이다. 이밖에 한국어에는 (8)b에서 보이듯이 상당수의 형용사/동사 동형어가 존재한다.

- (8) a. 모자라다, 평행하다, 맞다, 틀리다, 두드러지다, 늦다, 군다, 밝다, 크다..
 b. 걸다, 굽다, 낮다, 달다, 보다, 설다, 세다, 싸다, 쓰다, 재다, 째다, 적다, 차다..

더구나 대응언 그런다/그렇다, 부정 보조동사 -지 않는다/-지 않다, 존재 동사 있다/있는다나, 또 독립된 서술어로 기능할 뿐 아니라 복합동사(연구하다)/복합형용사(조용하다) 구성에도 똑같이 참여하는 한국어의 가장 중요한 어휘 요소인 하다 역시 동일하게 형용사/동사의 범주적 차이를 보인다.

- (9) a. 형용사 용법
 이 방이 (조용하다+조용은 하다+조용하기는 하다)
 b. 동사 용법
 윤이는 이 문제를 (연구한다+연구는 한다+연구하기는 한다)

(10)a에 보이는 어휘는 범주 분석이 주의를 요하는 사례이고, (10)b는 (7)b에서 언급된 유형의 합성 형용사 사례이다.

- (10) a. 감사하다, 고맙다, 늦다, 땀다, 굽다(공사관에서 잔뼈가 굵었다), 굵

다2(허리가 굽었다), 빠지다(약아 빠졌다), 터지다(게을러 터졌다)...

- b. 뛰어나다, 유별나다, 힘들다, 낯방지다, 기름지다, 알차다, 활기차다...

한국어에서는 형용사/명사 사이에 동형성을 보이는 사례는 없는 듯하다. 다시 말해 명사와 동일한 형태에 형용사를 특징짓는 굴절접사가 부착될 수 있는 예가 없다는 의미이다. 동사/명사 사이에는 예외적으로 신, 되, 빛, 피, 플 등 몇 개의 사례가 있다. 형용사가 명사로 전환되려면 형용사 어간에 -르, -기 또는 -이가 첨가되어야 하고(아름다움, 세기, 깊이), 명사가 형용사로 전환되려면 -스럽, -답, -롭과 같은 접미사가 필요한데(탐스럽다, 자랑스럽다, 정답다, 흥미롭다, 이롭다, 해롭다), 이와 같은 형용사 파생 접미사는 극히 제한되어 있다.

(11)a-c는 한국어 명사가 머리 명사에 의존적으로 명사구 구성 성분으로 기능하게—수식 기능을 수행한다— 되는 세 가지 전형적인 경우의 사례이다.

- (11) a. 대학 도서관, 대통령 선거, 지방 도로, 계급 투쟁...
- b. 가공의 인물, 불굴의 의지, 불후의 대작, 약속의 땅, 희망의 나라...
- c. 재정적 지원, 경제적 이유, 언어학적 분석...

이와 같이 볼 때, 불어 명사파생 형용사 부류의 상당 부분을 차지하는 관계형용사에—*malheur*, *silence*에서 파생된 *malheureux*, *silencieux*는 관계형용사로 특징지을 수 없다— 대응되는 한국어 형용사 하위부류는 존재하지 않는다. -스럽 형 또는 -답 형, -롭 형 형용사는 의미상으로는나 통사 행태상으로 전혀 불어 관계형용사에 대응시킬 수 있는 등가 부류를 이루지 않는다.

3. 불어 관계형용사의 문제

불어 관계형용사에 대한 관찰은 불어 문법체계에 대한 성찰의 역사만큼이

나 오래 된 것이기는 하나,¹⁰⁾¹¹⁾ 그 언어적 행태에 관한 체계적인 분석을 통해 불어 형용사의 하위 부류로 관계형용사 범주를 설정하고자 했던 현대적인 시도의 한 사례는 Kalik 1967에서 볼 수 있다. 그 이후 진행된 관계형용사 연구는 이 부류 형용사의 특징을 대체로 다음과 같이 지적하였다(이하의 논의에서 편의상 다음과 같은 약호를 사용하기로 한다: AR 관계형용사, AQ 품질 형용사, N1 관계형용사가 수식하는 머리명사, N2 AR 파생의 어기 역할을 하는 명사).

(12) a. AR은 명사파생 형용사 *adjectifs dénominaux*의 하위부류이다¹²⁾.

b. AR은 불문법에서 AQ로 지칭되어 온 전형적인 형용사와 달리, N1이 지시하는 대상의 상태나 속성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N1과 N2 사이의 다양한 관계를 표현한다.

c. 위의 b 특성에 따라 AR은 *Prép N2*에 대응시킬 수 있고, 항상 N1에 후치되며, 속사 *attribut* 위치에 분포될 수 없고, 따라서 분리 위치에서 동격 기능을 수행할 수도 없으며, 정도 부사의 수식을 받을 수도 없다.

d. b와 c의 특성에 따라, AR은 전형적인 AQ와 구별되는 하위부류를 구성하므로, 명사구 내에서 AQ와 등위접속이 불가능하고, N1+AR 연쇄 사이에 AQ가 삽입될 수도 없다.¹³⁾¹⁴⁾

10) 형용사의 전통적인 다양한 분류 체계에 대한 개관은 P. Bouillon 2001의 29-45쪽을 참조할 것.

11) Goes 1999는 Du Marsais가 이미 1797년에 *Encyclopédie*에 실린 문법 항목의 기술에서 *un palais du roi*가 *palais royal*에 상당하며 이때 *royal*과 같은 유형의 형용사를 *qualificatif indéfini*로 지칭하였음을 지적하고 있다.

12) 이러한 진술은 *politique, militaire, ouvrier* 같은 무접사 파생에 의한 범주 전환의 사례나, *nasal, canin, cardiaque, natal* 등과 같이 식자어 형성 *formation savante*에 의한 라틴어 파생어 차용의 사례, 또는 보충형 *forme supplétive*을 어기로 하는 파생형도 모두 명사파생 형용사로 특징짓는다는 것을 함의한다.

13) 이밖에도 AR의 다음과 같은 속성이 지적되었다.

i) a. AR은, AQ와는 달리, 술어를 수식하는 부사로의 파생에 제약이 있다.

(13)-(14)의 자료는 (12)a-d의 속성을 확인시켜 준다.

- (13) a. le remaniement (ministériel+du ministère)
- b. la coagulation (sanguine+du sang)
- c. l'amendement (budgétaire+au budget)
- d. les interventions (médiatiques+dans les médias)
- e. une exposition (félino+de félins)
- f. un festival (musical+de musique)

- (14) a. *le ministériel remaniement
- b. *le remaniement était ministériel
- c. *le remaniement (très+plus) ministériel
- d. *le remaniement ministériel et important
- e. (un remaniement ministériel important+un important remaniement ministériel+*un remaniement important ministériel)

그러나, 또 한편으로 AR의 행태에 대한 다음과 같은 관찰이 축적됨에 따라, AR의 정체성의 문제—AR을 엄밀하게 구분되는 형용사의 하위부류로 설정하는 것이 가능한가하는 문제—가 제기되기도 하였다.

b. AR을 어기로 하는 명사파생에 제약이 있다.

(1)a-d의 사례에 비추어 본다면, **pétrolièrement*이나 **universitairement*같은 부사는 현대 불어에 존재하지 않으며, *financièrement*이나 *nationalement*같은 파생부사는 존재하지만, *doucement*이나 *silencieusement*같은 방식의 부사adverbe de manière가 아닌 전혀 다른 부류의 부사로 기능한다. 또한 *beau-beauté*, *grand-grandeur*와 같은 유형의 파생관계가 *pétrolier*, *universitaire* 등을 기반으로 성립될 수는 없다.

14) AQ에 대한 AR의 이와 같은 부정적 행태에 근거하여 AR은 유사한 부정적 속성을 보이지만 명사파생 형용사는 아닌 일부 형용사와 더불어 의사형용사pseudo-adjectif로 지칭되거나 하위범주화되기도 한다. 예컨대 *grand fumeur*나 *vrai savant*과 같은 표현에서 형용사 *grand*과 *vrai*는 머리 명사에 전치되는 속성만을 제외하고, AR과 (12)c-d의 부정적 속성을 공유한다.

- (15) (12)c-d의 부정적 속성은 모든 AR이 획일적으로 보여주는 특성이 아니다.¹⁵⁾
- (16) 동일한 형용사가 AR/AQ의 이중적 용법을 보일 수 있다.¹⁶⁾
- (17) 모든 명사파생 형용사는 AR이거나 AQ이거나 'NI와 관계있는' 이라는 동일한 기저의미를 가정할 수 있다.¹⁷⁾

또한 명사구 구성성분으로만 실현되는 AR이 보여주는 (12)c-d의 부정적 속성은 머리 명사와 함께 합성명사를 구성하는 모든 형용사의 속성으로 해석될 가능성도 있다. 예컨대 합성명사인 *carte bleue*에 내포된 AQ *bleue*는 (12)c-d의 부정적 속성을 그대로 보여주는 것이다. 또한 NI+AR 연쇄가 많은 경우 합성어 지위를 갖는 것도 사실이다.¹⁸⁾

우리는 이와 같이 제기되는 AR의 문제에 대해 좀 더 심화된 언어학적 논의의 가능성은 열어 두되, 불·한 형용사 사전 구축을 위한 어휘 대조 연구를 위한 방법론적 선택의 관점에서 다음과 같은 입장을 택하기로 한다.

15) 예컨대 AR인 *gouvernemental*은 다음과 같이 속사 위치의 분포가 가능하다.

ii) Ces mesures sont gouvernementales.

AR이 특히 대조적 맥락에서 이러한 행태를 보일 수 있음은 많은 AR 연구에서 지적되었다.

iii) Cette route n'est pas nationale, mais départementale.

16) 예컨대 *nerveux*는 다음과 같이 AQ/AR의 이중적 용법을 보인다.

iv) a. l'étudiante nerveuse → la nervosité de l'étudiante

b. L'étudiante est très nerveuse.

v) a. le système nerveux → *la nervosité du système

b. *Le système est nerveux

AQ/AR의 이중적 성격의 복잡한 양상의 한 단면은 Bartning et Noailly 1993에 잘 기술되어 있다.

17) Mélis-Puchulu 1991.

18) *cage thoracique, chaleur solaire, école maternelle, sécurité sociale* 등은 그 전형적인 예가 될 것이다.

- (18) a. AR 부류의 변별성을 인정한다.
- b. 이중적 용법의 형용사는 다의어로 기술하지 않고 동형어로 분리한다.
- c. 모든 명사파생 형용사의 공통의 기저의미를 강조하기 보다는 N1의 의미유형이나 N1과의 의미관계의 유형, N1+AR 연쇄가 보여주는 통사적 행태 등을 고려한 명사구의 구체적 해석을 우선 고려한다.
- d. N1+AR 연쇄 중 일부에 대해서는 합성명사 지위를 부여하지만, 이러한 범주화를 일반화하지는 않는다.

4. 불어 관계형용사와 한국어 대응표현

4.1. 불·한 형용사 대조

불어 AR 어휘의 한국어 대응양상을 살피기 전에, 양국어에서 형용사 범주가 어휘적으로 대응되는 일반적 양상을 간략히 정리해 보자.

두 언어에서 형용사는 형태론적/통사론적/의미론적 속성이 동일하지 않다. 그러나 담화·화용적 차원에서의 서술prédication 기능과 수식modification 기능은 공유하고 있다. 이 점은 형용사 범주가 존재하는 모든 언어에서 확인되는 보편적 특성이다. 그렇지만 형용사만 배타적으로 지닌 특성이 아니라는 점은 유념해 둘 필요가 있다. 한국어나 불어의 동사 역시 이 두 가지 기능을 다 수행할 수 있는 것이다. 여기서 제기되는 일반적 문제는, 서술/수식 중에서 어느 기능이 일차적/우선적인가 하는 것이다. 우리는 현재로서는 제한된 관찰에 의거한 추정이기는 하지만, 앞서 언급한 바대로의 형용사의 형태·통사론적 유형에 따라 그 일차적 기능이 다르다고 판단할 수 있다. 다시 말해, 한국어와 같은 동사성 형용사 언어에서는 서술 기능이 우선적이고, 불어와 같은 명사성 형용사 언어에서는 수식 기능이 우선적이 아닌가 하는 것이다.

한국어 형용사가 서술 기능을 담당하기 위해서는 계사와 같은 기능 요소가 필요없이 온전히 서술어 지위를 갖고, 동사를 특징짓는 대부분의 굴절접사와 양립이 가능하다. 그러나 명사구 내에서 명사에 선행하여 수식 기능을 수행하기 위해서는 형용사는 관계절 내의 서술어 형용사가 취하는 굴절형태론적

변이와 동일한 활용양상을 보인다. 형용사는 이른바 관형형 어말어미를 취한다. 따라서 한국어 명사구 구성에서는 서술어 형용사를 내포한 관계절과 관형형 수식어 형용사와 구별이 없다. 이러한 점은 관계대명사의 부재라는 품사유형론적 특징에 대응되는 것이다. 그러나 한국어 수식어 형용사가 취하는 굴절접사는 서술어 형용사가 취할 수 있는 굴절접사에 비하면 극도로 제한이 되어 있다. 이러한 현상은 전형적/일차적 기능으로부터의 전환(서술→수식)에 따른 형태론적 특성의 축소로 해석할 수 있을 것이다. 또한 한국어에서는 관형형으로만 존재하고 서술어 위치의 분포가 제약되는 형용사 사례는 극히 예외적인 일부 어휘밖에는 관찰되지 않는다(진정한, 유연한, 가공할...).

이와 대조적으로, 불어 형용사는 서술 기능을 담당하기 위해 계사가 반드시 필요하고, AR를 비롯하여 몇 가지 하위 유형의 형용사는 속사 위치의 분포가 제약되어 있다.¹⁹⁾ 동일한 명사성 형용사 언어인 독일어의 경우는 형용사가 계사와 결합하여 서술 기능을 수행할 때에는, 독일어 형용사를 특징짓는 성·수·격변화가 없다. 따라서, 한국어에서의 AR 부재와 더불어, 이와 같은 두 언어 형용사 범주의 일차 기능의 비대칭적/대조적 성격을 고려하여 어휘대조 작업을 한다면, 불/한 또는 한/불 대조라는 대조의 방향성이 실제적 문제로 제기된다. 우리는 불/한 대조의 방향을 택하는 까닭에 출발언어인 불어—다시 말해 수식 기능이 형용사의 일차적 기능으로 간주되는 불어의 특성을—를 중심으로 문제를 살필 수밖에 없다. 그러므로 불어 형용사 어휘의 한국어 대응은 반드시 그것을 내포한 명사구의 차원에서 관형형 굴절어미를 취한 형태로 기술될 것이다.

(3)a의 진술에 의거하여, 우리는 언어간 어휘 대응이 범주별 일대일 대응이 될 수 없다는 것을 쉽게 예측할 수 있다. 이개 언어에 공통되게 어휘범주가 존재한다 하더라도 그 하위범주들 사이의 존재/부재의 비대칭 역시 일반적 사실이며, 언어에 따른 어휘화 양상의 변이 역시 일반적이므로 대응 양상은 복잡할 수밖에 없는 것이다. 다음의 자료는 불어 형용사의 한국어 어휘 대응

19) 예를 들면, *un grand fumeur*에 대응되는 **ce fumeur est grand*이나 *un gros mangeur*에 대응되는 **ce mangeur est gros*는 불가능하다. 각주 14) 참조.

양상의 일면을 보여준다(이 자료는 가능한 대응 유형을 총망라한 것은 아니다. A는 형용사, V는 동사, Dét는 한정사, R은 한국어 어근 부류).

(19)

불어		한국어	
ㄱ.	A	triste	A 슬픈
		rapide	빠른
		jeune	젊은
ㄴ.	A	vieux	V 늙은
		parallèle	평행하는
ㄷ.	A	rational	X-적(인) 합리적/이성적(인)
		logique	논리적(인)
		positif	긍정적/적극적(인)
ㄹ.	A	nouveau (mari)	Dét 새 (남편)
		(viande) crue	날 (고기)
		(le) défunt (M. Legrand)	고 (르그랑씨)
		ancien président	전[전직] 대통령
ㅁ.	A	vrai N	N 진짜
		faux N	가짜
		(nom) commun	보통 (명사)
		(nom) propre	고유 (명사)
ㅂ.	A	muets (reproches)	N-의 무언의 (비난)
		(but) commun	공동의 목적

스 .	A	grand fumeur gros mangeur histoire vraie vent fort	합성어구성 어근	골초 대식가 실화 강풍
ㅇ .	A	poissonneux peureux	N A	고기가 많은 겁이 많은
스 .	A	intéressant compréhensif	N 있는/없는	재미(가) 있는 이해심이 있는
흐 .	A	barbu boiteux	N V	수염이 난/곰팡이가 핀 다리를 저는

이개언어 사이의 어휘대조를 위해서는 다의어 의미구분의 문제나—엄격히 말하면 한 어휘요소의 구별되는 의미들 사이의 대응이 어휘대조의 기본이다—, 동의관계(synonymie)의 문제—구별되는 하나의 의미가 둘 이상의 등가 표현과 대응관계를 맺을 수 있다: ancien↔전/전직, rational↔합리적/이성적(인)— 또한 필수적으로 고려되어야 할 것이다. 위의 자료는 이러한 고려가 없이 단순히 불·한 이개어 사이의 어휘범주별 등가관계의 유형을 설정하기 위해서, 불어 형용사 범주의 어휘가 대응될 수 있는 가능한 한국어 어휘범주나 복합표현의 유형을 일부 예시할 뿐이다. 그러나 우리는 위와 같은 틀로 대규모의 구체적인 대조작업이 진행된다면, 유형론적 어휘대조의 관점에서 중요하고 뜻깊게 활용될 수 있는 자료가 구성되리라 본다. 예컨대, A↔A, A↔V, A↔N 등 여러 대응유형의 분포에 대한 계량적 사실이 추출될 수 있다면 그 결과를 어휘의미론적으로 분석해 보고²⁰⁾ 또한 불·한 양국 언어 형용사

20) 예컨대 어떤 어휘의미적인 유형들이 A↔V, 또는 A↔N의 대응을 보이는가를 살펴보는 것이다.

의 유형론적 특성과 상관시켜 흥미있는 결론을 이끌어 낼 수도 있으리라 본다.

4.2. 관계형용사와 한국어 대응표현

불어 관계형용사는 전형적으로 명사구 구성성분으로 명사에 후치되는 속성을 지니고 있으므로, 한국어 대응표현의 양상에 대한 분석은 NI-AR로 구성되는 명사구 차원에서 출발하는 것이 적절하다. 우리는 따라서 아래에서 NI-AR의 맥락에서 AR의 한국어 대응표현의 양상을 제시해 볼 것이다. 이를 위해, 우리는 AR 부류 자체에 대한 깊이 있는 분석은 별도의 문제로 유보하고, 다음과 같은 개략적인 NI-AR 분류 체계를 채택하여 등가표현의 유형을 살필 것이다.

- (20) ㄱ. 술어명사+논항
- ㄴ. 술어명사+비논항
- ㄷ. 비술어명사+AR

이 분류는 NI-AR 연쇄에서 NI이 술어명사nom prédicatif인가 비술어명사인 가 하는 기준과, NI이 술어명사인 경우 AR의 어기 역할을 하는 명사 N2가 NI에 대해 논항의 지위를 지니는가 하는 기준에 의한 것이다.

술어명사는 *voyage, élection, attaque, production* 등 공시적 관점에서 동사 또는 형용사와 형태론적으로 상관지을 수 있는 유형도 있지만, *sommeil*나 *chute, crise, événement*과 같은 유형도 있다.²¹⁾ NI이 술어명사인 경우, AR에 잠재된 명사 N2는 (i)NI에 대해 제1논항(학자에 따라서는 주어) 또는 제2논항(학자에 따라서는 목적어)으로 분석되는 NI-AR 유형도 있고, (ii)장소, 시간, 도구 등의 의미를 표현하는 비논항의 지위를 지닌 것으로 분석될 수 있는 NI-AR 유형도 있다. 다음 (21)a-b와 (21)c는 각각 이러한 두 유형을 예시한다.

21) 불어 술어명사에 대해서는 M. Gross의 어휘문법적 틀에서 많은 연구가 이루어졌다. A. Monceau 1993, 1997은 이러한 관점에서 술어명사+AR 연쇄를 연구한 사례이다.

- (21) a. 술어명사+제1논항
voyage présidentiel
intervention américaine
victoire romaine
- b. 술어명사+제2논항
production pétrolière
libération nationale
- c. 술어명사+비논항
séjour espagnol (du président)
transport routier
communication téléphonique
dépense annuelle
discrimination sexuelle

N1-AR 연쇄에서 N1이 비술어명사인 경우 N2와의 사이에는 다양한 의미관계가 성립될 수 있다. (21)d는 그 중 몇 가지 유형만을 보여준다.²²⁾

- (21) d. pays pétrolier (N1 produit N2)²³⁾
agent immobilier (N1 s'occupe de N2)
hélicoptère présidentiel (N2 a N1)
politique gouvernementale (N2 mène N1)
problèmes financiers (N1 concerne N2)

(21)a-d 유형을 고려하여 N1-AR과 그 한국어 명사구 대응유형을 설정해 보면 대체로 다음과 같다.

22) N1과 N2 사이의 의미관계 분류의 한 예는 Bartning 1980, pp. 29-33에서 볼 수 있다.

23) () 안의 내용은 N1과 N2 사이의 의미관계를 환언문 형식으로 명시한 것이다.

(22)

ㄱ. N-AR ↔ NN

agitation étudiante(a)	학생 소요
analyse sanguine(b)	피[혈액] 검사
conquête spatiale(b)	우주 탐사
culture légumière(b)	채소 재배
pollution atmosphérique(b)	대기 오염
transport routier(c)	육상 교통
repos dominical(c)	주말 휴식
discrimination sexuelle(c)	성 차별
bibliothèque universitaire(d)	대학 도서관
adjectifs relationnels(d)	관계 형용사
record mondial(d)	세계 기록
roman historique(d)	역사 소설
chaleur solaire(d)	태양열
groupes sanguins(d)	혈액형

ㄴ. N-AR ↔ N-의 N

attaque américaine(a)	미국의 공격
lutttes ouvrières(a)	노동자들의 투쟁
progrès scientifique(a)	과학의 진보
refus américain(a)	미국의 거부
destruction forestière(b)	숲의 파괴
réaménagement universitaire(b)	대학의 정비

ㄷ. N-AR ↔ N(-의) N

évolution humaine(a)	인류(의) 진화
----------------------	----------